

간호사, 비밀기 암환자 및 말기 암환자가 지각한 간호요구의 중요도와 제공정도에 대한 비교

최 자 윤¹⁾

서 론

연구의 필요성

간호요구의 사정은 간호의 주요 관심사이며 질적인 간호를 제공하는데 필수적인 과정이다(Blank, Clark, Longman & Atwood, 1989). 암은 전체 사망원인의 1, 2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현대 의학의 발달로 예전과는 달리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이라는 개념보다는 장기적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으로 분류되고 있다(Hileman & Lackey, 1990). 따라서 진단 받고 생존하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암 질환은 계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며(Hileman & Lackey, 1990), 치료과정에서 환자와 가족은 많은 심리적 충격과 갈등, 신체적 고통을 경험하게 되므로 다른 어느 질환보다 암환자와 가족들의 요구를 파악하는 것이 적절한 간호중재를 제공하는데 도움이 된다(Yang, 1997).

그러나 환자와 간호제공자 사이에 중요한 간호양상으로 확인하거나 순위를 매기는데 있어 불일치가 보고되어(Choi, 2000), 간호사가 중요하다고 인지하는 암환자의 간호요구와 암환자 자신이 인지하는 간호요구의 중요도가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 또한 새로 진단 받은 암환자와 재발된 암환자의 희망수준을 비교한 연구에서 두 집단 간 차이는 없었으나 새로 진단 받은 암환자는 자신의 치료 및 의사, 간호사나 다른 건강전문가로부터 희망을 얻은 반면 재발된 암을 가진 환자의 경우에는 자신의 신념에서 희망을 얻는 것으로 나타나(Green & Logsdon, 1997), 적극적 치료를 받고 있는 암환자와 증상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보존요법을 받고 있는 말기

암환자의 간호 접근에 있어서 차이가 있어야 함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이 두 집단 간에도 전반적인 간호요구의 사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지금까지 암환자나 간호사를 대상으로 간호요구 양상을 확인한 연구를 살펴보면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분야는 간호요구 중 정보적 요구에 대한 탐색이나 증례였다(Ham, Gu, Lee & Kim, 2002; Decker, Phillips & Haase, 2004). 정보적 요구를 포함하여 심리적 간호요구 및 신체적 간호요구를 포괄적으로 고찰한 연구의 경우에는 수술 전이나 항암요법 중의 경험이나 관심에 대한 고찰로 대부분 질적 연구 방법에 의해 이루어졌다(Ali, Khalil & Yousef, 1993; Ferrell, Heaven, Beaver & Maguire, 2005; Gwon & Eun, 1996; Kim, Park, Kim & Kim, 2004). 입원한 암환자의 간호요구 뿐만 아니라 퇴원 후 간호요구에 대한 고찰이 있었고(Gwon & Eun, 1998; Lee & Lee, 2003; Ham, Choi, Eun, Gwon & Rhu, 2001) 퇴원 전·후의 간호요구에 대한 비교연구들이 이루어졌다(Choi, Park & Rhu, 1999). 또한 암환자 자신의 요구는 아니지만 암환자를 간호하는 간호사나 가족이 지각하고 있는 암환자의 간호요구에 관한 고찰이 이루어졌다(Gwon & Eun, 1998; Yang, 1997). 이들 연구를 바탕으로 포괄적인 간호요구에 대한 사정도구가 마련되었고 본 연구와 마찬가지로 암환자와 간호사의 간호요구를 함께 파악하여 비교한 연구가 Yang(1997)과 Jeong(2003)에 의해 이루어져 간호사의 인지와 암환자의 기대사이에 차이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그러나 암은 진단 받고 생존하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계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질병단계를 고려한 도움이 요청된다

주요어 : 간호요구, 간호사, 비밀기 암환자, 말기 암환자, 차이

1) 전남대학교 간호대학 조교수, 전남대학교 간호과학연구소

투고일: 2005년 5월 23일 심사완료일: 2005년 9월 9일

(Choi, 2000). 이를 지지한 연구로 Yang(1997)의 연구에서는 간호사들이 입원한 암환자 간호요구의 중요성을 질병단계에 따라 다르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암환자는 조기 발견을 통해 완치가능성이 높은 암환자에서부터 진단 시부터 말기 진단을 받은 경우나 여러 가지 치료에도 불구하고 재발을 반복하면서 적극적인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까지 질병단계가 다양할 수 있다. 따라서 암환자에 모든 암환자를 포괄하여 간호요구를 조사했던 선행연구의 경우 여러 변수를 고려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비말기 암환자와 말기 암환자로 구분하여 간호요구를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간호사, 적극적인 치료를 받고 있는 비말기 암환자 및 대증요법을 받고 있는 말기 암환자 간에 어떤 간호요구를 중요하게 인지하는지와 어떤 간호요구를 제공하고 제공받는지에 대한 차이를 규명하고자 하고 이를 통해 간호사들이 대상자가 기대하는 간호요구와 결핍된 간호요구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을 돕고자 한다. 나아가 대상자 요구에 기반을 둔 간호중재 프로그램의 개발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고자 한다.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사, 비말기 암환자 및 말기 암환자가 간호요구를 중요하다고 인지한 정도와 제공하였거나 제공받았다고 인지한 정도를 비교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간호사, 비말기 암환자 및 말기 암환자를 대상으로 집단 내 간호요구의 중요도와 간호요구의 제공정도 간 차이를 비교한다.

둘째, 간호사, 비말기 암환자 및 말기 암환자를 대상으로 집단 간 간호요구의 중요도와 간호요구의 제공정도의 차이를 비교한다.

연구 방법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사, 비말기 암환자 및 말기 암환자 간의 간호요구의 중요도와 제공정도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한 서술적 비교 연구이다.

대상자

- 간호사

2004년 3월 한 달 동안 C 대학교 병원 소화기계, 호흡기계, 혈액종양, 비뇨기계 및 부인과의 5개과 8개 중앙 병동에 1년 이상 근무경험이 있는 간호사 전수 중 분만 및 육아 휴직 상태인 2명의 간호사를 제외한 83명의 간호사를 최종 대상으로 하였다.

● 암환자

2004년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 동안 C 대학교 병원 소화기계, 호흡기계, 혈액종양, 비뇨기계 및 부인과의 5개과 8개 병동에 암진단을 받고 입원한 대상자 전수 중 연구의 목적을 설명한 후 참여를 동의한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들 암환자를 다시 말기 암환자와 비말기 암환자로 구분하였는데 말기 암환자는 진단단계가 4기인 경우와 해당 병동에 의뢰하여 의학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치유가 힘들다고 판단된 경우로 정의하였다. 이들 기준을 만족시킨 암환자는 최종 95명이었으며 이중 말기 암환자가 39명, 비말기 암환자가 56명이었다.

도구

● 간호요구

암환자에게 필요하다고 인지한 간호요구 내용은 선행연구(Yang, 1997; Gwon & Eun, 1998)를 기반으로 Jeong(2003)이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간호요구내용은 교육·정보적 요구 15문항, 신체적 요구 12문항, 정서적 요구 10문항의 총 37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4점 Likert 척도로 평가하였다. 간호요구는 간호요구의 중요도와 제공정도의 두 가지 측면에서 측정되었다. 간호요구의 중요도는 대상자에게 각 문항에 대해 얼마나 중요하게 인지하고 있는지를 측정하였고, 간호요구의 제공정도는 간호사에게 얼마나 이들 간호요구를 실제로 제공하였는지와 암환자와 말기암환자에게는 실제로 얼마나 이들 간호요구를 제공받았는지 정도를 질문하여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항목에 대한 요구가 높음을 의미하였으며 Jeong(2003)의 연구에서는 신뢰도 Cronbach's alpha가 교육·정보적 간호요구, 신체적 간호요구 및 정서적 간호요구에서 각각 .80, .84 및 .86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각각 .79, .88 및 .84였다.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 기간은 2004년 3월부터 9월까지 였다. 간호사와 암환자를 대상으로 연구의 목적과 응답방법을 설명하고 자가 보고식 설문지를 사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환자 스스로 답하기 어려운 경우에 훈련된 1명의 연구보조자가 질문하고 답하여 기록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SPSS 12.0을 사용하였고 변인 별 구체적인 자료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서술적 통계를 사용하였다.

둘째, 비밀기 암환자와 말기 암환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비교는 χ^2 test를 사용하였다.

셋째, 각 집단 내 간호요구의 중요도와 간호요구의 제공정도 간 차이는 paired t-test를 사용하였다.

넷째, 각 집단 간 간호요구의 중요도와 간호요구의 제공정도의 차이는 ANOVA를 사용하였고 사후검정은 scheffé test를 사용하였다.

연구의 제한점

첫째, 연구대상 병원을 1개로 국한시켜 표본의 대표성에 있어 연구의 제한점이 있다.

둘째, 본 연구는 기존 연구와 달리 비밀기 암환자와 말기 암환자의 간호 요구도는 세분화하여 조사하였으나 간호사의 경우에는 비밀기 암환자와 말기 암환자의 간호 요구도를 분리하여 질문하지 않았다는 제한점이 있다.

연구 결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종양병동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간호사는 모두 여성이었고 평균 연령은 29.6세였으며 30세 미만이 65.1%를 차지하였다. 미혼이 62.7%였고 종교가 있는 경우가 50.6%였으며 4년제 대학을 졸업한 경우가 69.9%였고, 직위는 일반간호사가 90.4%였다. 전체 근무경력은 평균 55.3개월이었고 5년 미만이 66.3%였으며 근무병동은 일반외과 근무가 30.1%로 가장 많았고 호스피스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가 55.4%에 해당하였다.

● 암환자의 일반적 특성

암환자의 일반적 특성은 56명(58.1%)이 비밀기 암환자였고, 39명(41.1%)이 말기 암환자였다. 남자가 약 60%(57.9)정도를 차지하였고 60%이상이 50세미만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58.2세였다. 종교가 없는 경우(53.6%)가 있는 경우보다 많았고 고졸 이하 학력이 가장 많았으며(66.7%)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80%(82.1)이상이었으며 치료기간은 1년 미만이 약 65%(64.2)정도였으며 입원 횟수는 두 번째 이상인 경우가 약 70%(71.6)정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oncology nurses (N=83)

Variables	Class	Frequency(%)	Mean±SD
Age	< 30	54(65.1)	29.55±6.11
	≥ 30	29(34.9)	
Marital status	Unmarried	52(62.7)	
	Married	31(37.3)	
Religion	Have	42(50.6)	
	Have not	41(49.4)	
Education	Junior College	14(16.9)	
	College	58(69.9)	
	Graduate School	11(13.2)	
Professional position	Staff nurse	75(90.4)	
	Head nurse	8(9.6)	
Length of service as a nurse (Month)	< 60	55(66.3)	55.29±5.77
	≥ 60	28(33.7)	
Working ward	General surgery	25(30.1)	
	Pulmonary	24(28.9)	
	Urinary surgery	18(21.8)	
	Gynecology	8(9.6)	
	Hematoncology	8(9.6)	
Hospice education	Yes	37(44.6)	
	No	46(55.4)	

도였다. 입원과는 외과계(55.8%)가 내과계(44.2%)에 비해 더 많았고 대부분(89.5%)이 의료 보험 상태였다.

이를 비밀기 암환자와 말기 암환자로 나누어 일반적 특성을 비교한 결과는 <Table 2>와 같았고 두 집단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간호사, 비밀기 암환자 및 말기 암환자의 집단 내 간호요구 중요도와 간호요구 제공 정도 간의 차이

간호사, 비밀기 암환자 및 말기 암환자 군 모두에서 집단 내 간호요구 중요도와 간호요구 제공정도 간에 차이가 있었다($t=7.15, p=.001$; $t=4.27, p=.001$; $t=15.46, p=.001$)<Table 3; Table 4; Table 5>. 이를 다시 교육·정보적 간호, 신체적 간호 및 정서적 간호 요구로 나누어 살펴보면 비밀기 암환자에서 신체적 간호 요구를 제외하고 각 대상자의 모든 세부 영역에서 차이를 보였다.

간호요구 중요도와 간호요구 제공 정도 간의 차이가 가장 큰 문항을 살펴보면 <Table 6>과 같다. 간호사의 경우 '성생활에 대한 정보제공'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였고 다음으로 '같이 있어주기', '장래에 대한 걱정을 함께 나누기', '질병 과정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치료비와 생존기간에 대한 설명' 순으로 차이가 있었다. 비밀기 암환자의 경우 '증상에 대한 간호방법 설명'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였고 다음으로 '개인위생 돕기', '감염예방법에 대한 정보제공' 및 '질병의 과정에 대한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tients with cancer (N=95)

Variables	Class	Patients with Non-terminal cancer (n=56)	Patients with Terminal cancer (n=39)	x ²	p
		Frequency(%)	Frequency(%)		
Gender	Male	30(53.6)	25(64.1)	1.05	.306
	Female	26(46.4)	14(35.9)		
Age	< 50	35(62.5)	28(71.8)	.89	.346
	≥ 50	21(37.5)	11(28.2)		
Religion	Yes	26(46.4)	16(41.0)	.27	.602
	No	30(53.6)	23(59.0)		
Education (yr)	< 19	27(48.2)	26(66.7)	3.21	.201
	19-22	21(37.5)	9(23.0)		
	≥ 23	8(14.3)	4(10.3)		
Partner	Yes	45(80.4)	33(84.6)		
	No	11(19.6)	6(15.4)		
Treatment period (yr)	< 1	39(69.7)	22(56.4)	1.89	.389
	1-2	5(8.9)	6(15.4)		
	> 2	12(21.4)	11(28.2)		
Frequency of admission	1	18(32.1)	9(23.1)	.93	.335
	≥ 2	38(67.9)	30(76.9)		
Department	Surgery	31(55.4)	22(56.4)		
	Medicine	25(44.6)	17(43.6)		
Type of Health Insurance	NHI	53(94.6)	32(82.1)	3.85	.056
	PAP (Medicaid)	3(5.4)	7(17.9)		

* yr : years, NHI : National Health Insurance, PAP : Public Assistant Program

<Table 3> Difference between perceived importance and perceived caring of nursing needs among oncology nurses (N=83)

Oncology Nurses	Importance (Mean±SD)	Caring (Mean±SD)	gap	t	p
Total	125.00±11.70	114.49±13.61	10.51	7.15	.001
Informational	51.14± 5.01	13.34± 1.81	37.80	8.70	.001
Physical	60.58± 5.88	56.14± 6.42	4.44	6.62	.001
Emotional	13.34± 1.81	11.94± 2.08	1.40	6.33	.001

<Table 4> Difference between perceived importance and perceived caring of nursing needs among patients with non-terminal cancer (n=59)

Patients with Non-terminal Cancer	Importance (Mean±SD)	Caring (Mean±SD)	gap	t	p
Total	119.54±18.23	105.65±18.64	13.58	4.27	.001
Informational	49.09±10.60	40.48± 7.64	8.61	5.68	.001
Physical	38.19± 5.47	35.87±10.30	2.33	1.53	.133
Emotional	32.71± 4.44	29.29± 4.63	3.42	5.36	.001

<Table 5> Difference between perceived importance and perceived caring of nursing needs among patients with terminal cancer (n=36)

Patients with Terminal Cancer	Importance (Mean±SD)	Caring (Mean±SD)	gap	t	p
Total	124.47±18.49	95.47±13.12	29.00	15.46	.001
Informational	54.25±13.33	37.47± 8.21	16.78	8.04	.001
Physical	38.08± 5.23	32.86± 4.44	5.22	6.78	.001
Emotional	32.47± 4.84	26.82± 4.70	5.66	7.83	.001

<Table 6> The highest seven items' gap between perceived importance and perceived caring of nursing needs

Subject	Items	Class	Gap
Oncology Nurses	Information of sexual life	1	.54
	Presence	2	.48
	Sharing of worries about future	3	.41
	Information of disease progress	1	.40
	Information of cost and life expectancy	1	.40
	helping personal hygiene	2	.39
	Sharing of anxiety	3	.38
Patients with Non-terminal cancer	Information of intervention of symptoms	1	1.23
	helping personal hygiene	2	.89
	Information of prevention from infection	1	.87
	Information of disease progress	1	.70
	Information of discharge medicine	1	.69
	Information of sexual life	1	.63
	Information of symptoms why patients have to visit hospital	1	.61
Patients with Terminal Cancer	Information of cost and life expectancy	1	2.89
	Information of symptoms why patients have to visit hospital	1	1.78
	Information of disease progress	1	.89
	Information of prevention from infection	1	.86
	Sharing of worries about future	3	.82
	Information of interventions of symptoms	1	.79
	Information of diagnosis procedure	1	.79

*1: Informational, 2: Physical, 3: Emotional

정보 제공' 순으로 차이가 있었다. 말기 암환자의 경우에는 '치료비와 생존기간에 대한 설명'에 관한 문항에서 차이가 가장 컸고 다음으로 '병원에 내원해야하는 이상증상에 대한 설명', '질병 과정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감염예방법에 대한 정보 제공' 순으로 차이가 있었다.

간호사, 비밀기 암환자 및 말기 암환자의 집단 간 간호요구 중요도와 간호요구 제공정도의 차이

간호요구의 중요도와 간호요구 제공정도에 있어 간호사, 비밀기 암환자 및 말기 암환자의 세 집단을 비교한 결과는 <Table 7>과 같다. 전체 간호요구 중요도에 있어서 세 집단의 차이는 없었으나($F=2.08, p=.128$), 세부 항목인 교육·정보적 간호요구와 신체적 간호요구에 있어 세 집단 간 차이를 보였다($F=3.36, p=.037$; $F=5.20, p=.006$). 이를 사후검정한 결과 교육·정보적 간호요구에서는 비밀기 암환자와 말기 암환자의 중요도에 차이가 있었으며 세 집단 중 말기 암환자에서 교육·정보적 영역의 요구에 대한 중요도가 가장 높았다. 신체적 간호요구에서는 간호사와 비밀기 암환자 간에 차이가 있었으며, 간호사의 이 영역에 대한 중요도가 가장 높았다.

반면, 전체적인 간호요구 제공정도에 있어 세 집단 간에 차이가 있었으며($F=18.73, p=.000$), 사후검정 결과 세 집단이 각각 차이가 있었다. 세부항목인 교육·정보적 간호요구에서는 간호사와 말기암환자 간에 차이가 있었고, 신체적 간호요구에

서는 말기 암환자와 두 집단(간호사, 비밀기 암환자) 간에 차이가 있었으며, 정서적 간호요구에서는 간호사와 말기 암환자 간에 차이가 있었다. 모든 세부영역에서 간호사의 제공정도가 가장 높았고 말기 암환자의 제공받은 정도가 가장 낮았다.

논 의

본 연구는 간호요구의 지각된 중요도와 제공정도 간의 일치정도와 간호제공자와 간호대상자 간의 간호요구에 대한 중요도나 제공정도에 대한 일치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연구였다. 따라서 각각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간호요구의 지각된 중요도와 제공정도 간의 일치정도

간호대상자가 서비스에 대해 가지는 요구를 근거로 부여하는 중요도는 대상자의 요구 구조를 반영하는 것으로, 차이분석(gap analysis)은 특정서비스에 대한 대상자의 신념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도와 실제 제공되었다고 느끼는 정도간의 차이를 규명하는 것이다(Yoo, 1996). 즉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도와 실제로 제공되었다고 느끼는 수행 간에 존재하는 지각의 차이가 그 서비스가 가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차이를 좁히는 것이 간호 서비스를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전략이다(Lee, 2004). 따라서 대상자 즉 비밀기 암환자나 말기 암환자의 지각된 중요도와 제공정도 간의 불일치 부분을 확인하는

<Table 7> Difference in perceived importance and perceived caring of nursing needs among oncology nurses, patients with non-terminal cancer and patients with terminal cancer

Variables	Subject	Mean±SD	F	p	Scheffe
Total perceived Importance	Nurses	125.00±11.70	2.08	.128	
	Patients with Non-terminal cancer	119.54±18.23			
	Patients with Terminal cancer	125.14±20.04			
Informational	Nurses	51.16± 4.97	3.36	.037	ab
	Patients with Non-terminal cancer	49.04±10.49			a
	Patients with Terminal cancer	54.29±13.53			b
Physical	Nurses	40.74± 4.07	5.20	.006	a
	Patients with Non-terminal cancer	38.28± 5.54			b
	Patients with Terminal cancer	38.39± 5.26			ab
Emotional	Nurses	33.20± 3.96	.44	.642	
	Patients with Non-terminal cancer	32.56± 4.45			
	Patients with Terminal cancer	32.58± 4.95			
Total perceived caring	Nurses	114.49±13.61	18.73	.001	a
	Patients with Non-terminal cancer	105.65±18.64			b
	Patients with Terminal cancer	95.47±13.12			c
Informational	Nurses	37.83± 4.43	7.40	.001	a
	Patients with Non-terminal cancer	35.98±10.44			ab
	Patients with Terminal cancer	32.57± 3.81			b
Physical	Nurses	56.24± 6.44	8.82	.001	a
	Patients with Non-terminal cancer	53.60±12.63			a
	Patients with Terminal cancer	48.80± 6.23			b
Emotional	Nurses	30.41± 4.42	7.49	.001	a
	Patients with Non-terminal cancer	29.17± 4.68			ab
	Patients with Terminal cancer	26.86± 4.80			b

*Pts : Patients

것이 종양간호의 질 개선을 위해 우선되어야 할 문제라고 사료된다. 그러나 선행연구에서 암환자가 지각한 중요도와 실제 제공받았다고 느끼는 정도 간의 차이를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암환자를 대상으로 한 간호 서비스의 차이 분석은 아니지만 수술 전 정보제공에 관한 의료진과 대상자의 인식의 차이를 비교한 연구(Mordiffi, Tan & Wong, 2003)와 전반적인 간호 서비스 질에 대한 차이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다(Lee, 2004; Uzun, 2001). 그 결과 본 연구 결과와 마찬가지로 대상자의 기대에 못 미치는 간호제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Jeong(2003)의 입원한 암환자와 간호사가 지각한 간호 요구도 비교에서 간호사가 제공한 간호요구와 암환자가 제공 받은 간호요구 간의 차이나 암환자가 제공되길 기대하는 간호요구와 간호사가 제공한 간호정도 간의 차이를 분석하기는 하였으나 암환자가 중요하다고 지각하여 제공되길 기대하는 간호요구와 실제 자신들이 제공받았다고 지각한 간호요구 간의 차이에 대해서는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와 Jeong(2003)의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간호사와 암환자가 간호 요구에 대해 중요도나 제공정도를 다르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간호사는 간호요구를 제공하였다고 지각하지만 암환자는 서비스를 제공받았다고 지각하지 않으므로 Jeong(2003)의 연구에서는 서비스 차이를 분석하였다고 판단

하기 어렵다. 암환자 자신이 중요하다고 느끼고 암환자 자신이 제공받았다고 생각하는 간호요구 정도의 차이를 확인하는 것이 의의가 있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암환자를 비말기 암환자와 말기 암환자로 구분하여 서비스 차이를 분석하였는데, 두 집단 모두에서 서비스 차이가 유의하였으며 두 집단 중 말기 암환자의 서비스 차이가 컸다. 세부영역 별로 비교하더라도 비말기 암환자에서 신체적 간호요구를 제외하고 서비스 차이가 유의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따라서 암환자의 간호의 질 향상을 위해 이 차이를 좁히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 결과는 특히 말기 암환자의 간호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어 호스피스 전문 병동의 운영과 호스피스 전문 요원의 활용이 제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비말기 암환자와 말기 암환자에서 공통적으로 차이가 큰 7위안에 들어간 문항을 살펴보면 증상에 대한 간호 방법 설명, 질병과정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감염예방법에 대한 정보 제공의 세가지 문항이었다. 모두 정보적 영역에서 차이를 보여 두 집단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이 영역에 관한 정보제공이나 추가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간호사의 경우 중요하지만 제공하지 못했다고 답한 상위의 문항이 정보적, 신체적 및 정서적 영역 모두에 걸쳐 나타났으나 암환자 두 집단에서는 각각 한 문항씩을 제외하고는 정보적 영역에서

차이를 보여 정보적 영역에 대한 기존의 연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보적 영역에 관한 간호요구 충족이 안 되고 있음을 보여주어 이에 대한 추가 분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Yang(1997)의 연구에서는 간호사들이 입원한 암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중요성을 환자의 질병단계에 따라 다르게 지각하며 질병 초기단계에서는 교육적 간호요구, 정서적 간호가 가장 중요하다고 지각하였고 말기 암환자에게는 신체적 간호가 가장 중요하다고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Yang(1997)의 연구에서는 교육적 간호, 신체적 간호 및 정서적 간호 영역 모두에서 간호사가 지각한 간호요구의 중요성에 비해 간호제공 정도는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결과는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또한, Yang(1997)의 연구에서는 말기 암환자의 경우에는 질병 초기단계와 달리 신체적 간호가 중요한 것으로 간호사들이 인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본 연구에서는 서비스 차이가 비밀기 암환자나 말기 암환자 모두에서 정보적 영역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나 간호사가 지각하는 말기 암환자의 간호요구와 차이를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지금까지 말기 암환자를 간호할 때 신체적 영역의 요구에 관심을 가졌다면 앞으로는 교육·정보적 영역의 요구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간호제공자와 간호대상자 간의 간호요구에 대한 중요도와 제공정도에 대한 일치정도

간호요구의 중요도면에서 세 집단 간에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를 세부 영역으로 살펴보면 교육·정보적 영역에서 말기 암환자의 중요도가 가장 높은 반면 제공받은 정도는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정보적 요구에서 간호사가 인지한 중요도는 암환자 두 집단과 다르지 않았으나 비밀기 암환자와 말기 암환자의 중요도에서 차이를 보여 질병단계에 따른 차별화된 정보제공 및 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이는 말기 암환자는 자신의 질병 상태나 예후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원하지만 의료진이 환자에게 직접적으로 말기 암 선고를 하는 일에 주저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의료진들이 이 영역의 윤리관이나 가치관을 확립할 수 있는 전략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신체적 간호 영역에서는 비밀기 암환자와 간호사 간에 중요도 면에서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Yang(1997)의 연구에서 간호사들이 질병 초기단계에서는 신체적 간호보다는 교육적 간호요구나 정서적 간호가 가장 중요하다고 지각한 결과와 일치한 결과라고 사료된다.

간호요구의 제공정도 면에서도 세 집단 간에 차이가 있어 간호요구 제공정도면의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먼저 교육·정보적 간호 요구 영역을 살펴보면,

Jeong(2003)의 연구에서는 교육·정보적 간호요구 영역의 간호제공 면에서 간호사와 암환자 간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비밀기 암환자와 간호사 간에 교육·정보적 간호요구 영역의 간호제공에 있어 차이가 없었고, 말기 암환자와 간호사 간에 차이를 보였다. 이는 기존 연구를 통해서 비밀기 암환자에 대한 정보제공 중재가 개발되어 어느 정도 이 영역에서의 간호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까지 말기 암환자를 대상으로 한 정보제공이나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지 않아 이 분야에 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신체적 간호 영역에서도 역시 간호사와 비밀기 암환자 간에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비밀기 암환자와 말기 암환자 간에도 신체적 간호 제공 정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말기 암환자가 지각한 신체적 간호 제공 정도가 두 집단에 비해 낮았는데 이는 복합적 생리적 변화에 따른 요구도는 증가하는데 반해 전문 인력에 의한 간호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정서적 간호요구 영역에서는 비밀기 암환자와 말기 암환자나 간호사의 제공정도에는 차이가 없었으나 말기 암환자와 간호사 간에 차이가 있었다. 정서적 영역은 말기 암환자에게 특별한 관심과 노력이 요구되는 영역이라고 사료되며 이 역시 호스피스 전문요원에 의한 간호로 인해 심신의 평안과 안위를 얻어 생의 마지막 과정을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중재들이 절실히 요구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말기 암환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한 요인으로 대상자 자신이 선택한 장소에서 죽을 수 있는 것을 꼽았고, 90%정도의 대상자가 집을 선호했다(Tang, 2003). 장소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삶의 질, 가족의 능력, 의료 서비스의 질, 의료진과의 관계 등으로 나타났다(Tang, 2003). 이렇듯 말기 암환자는 생의 마지막까지 주위 환경에 대한 통제감을 갖기를 원하므로 이런 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병원 문화의 정착이 요망된다.

간호사와 환자의 협력(partnership)을 저해하는 것에 관한 한 연구(Henderson, 2003)에서 간호사는 환자가 원할 때 정보를 제공하고 의사결정력을 공유한다고 생각하였으나 실제 관찰에서는 대부분의 간호사들은 자신들의 의사결정력을 공유할 것 꺼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간호요구의 중요도와 제공정도에서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간호사의 개방된 자세와 간호사와 환자 간에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간호사와 환자의 차이를 줄이고 보다 질적인 간호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이 요구된다.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사, 비밀기 암환자 및 말기 암환자가

간호요구를 중요하다고 인지한 정도와 제공하였거나 제공받았다고 인지한 정도를 비교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자로 간호사는 2004년 3월 C 대학교 병원 소화기계, 호흡기계, 혈액종양, 비뇨기계 및 부인과의 5개과 8개 종양 병동에 1년 이상 근무 경험이 있는 83명을 최종 대상으로 하였고 암환자는 2004년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 동안 간호사와 동일 대상 병동에 암 진단을 받고 입원한 환자 중 적극적인 치료 중인 비말기 암 환자 56명과 말기 암환자 39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수집은 2004년 3월부터 9월까지 Jeong(2003)이 개발한 암환자 간호요구 측정 도구를 사용하여 4점 척도 자가보고식 설문지를 이용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간호사의 평균 연령은 29.6세였으며, 미혼이 62.7%였고 종교가 있는 경우가 50.6%였다. 전체 근무경력 평균 55.3개월이었고 근무병동은 일반외과 근무가 30.1%로 가장 많았고 호스피스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가 55.4%에 해당하였다.

둘째, 암환자의 일반적 특성은 남자가 약 60%정도를 차지하였고 평균 연령은 58.2세 였다. 종교가 없는 경우(53.6%)가 있는 경우보다 많았고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80%이상이었으며 치료기간은 1년 미만이 약 65%정도였고 입원 횟수는 두 번째 이상인 경우가 약 70%정도였다. 입원과는 외과계(55.8%)가 내과계(44.2%)에 비해 더 많았고 대부분(89.5%)이 의료 보험 상태였다. 이를 비말기 암환자와 말기 암환자로 나누어 일반적 특성을 비교한 결과 두 군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셋째, 간호사, 비말기 암환자 및 말기 암환자 모두에서 간호요구 중요도와 간호요구 제공정도 간에 차이가 있었다($t=7.15, p=.001$; $t=4.27, p=.001$; $t=15.46, p=.001$).

넷째, 간호사는 '성생활에 대한 정보제공' 문항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였고 비말기 암환자는 '증상에 대한 간호방법 설명' 문항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였으며 말기 암환자는 '치료비와 생존기간에 대한 설명'에 관한 문항에서 차이가 가장 컸다.

다섯째, 전체 간호요구 중요도에 있어서 세 집단의 차이는 없었으나($F=2.08, p=.128$), 세부 항목인 교육·정보적 간호요구와 신체적 간호요구에 있어 세 집단 간 차이를 보였다($F=3.36, p=.037$; $F=5.20, p=.006$).

여섯째, 전체적인 간호요구 제공정도에 있어 세 집단 간에 차이가 있었다($F=18.73, p=.000$).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암환자가 중요하다고 인지한 간호요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 차이를 좁힐 수 있는 전략의 개발이 필요하다.

둘째, 말기 암환자의 교육 및 정보제공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셋째, 말기 암환자의 간호를 전달할 수 있는 호스피스 병동

과 호스피스 전문 간호사의 활용을 위한 제도마련이 필요하다.

References

- Alis, N. S., Khalil, H. Z., & Yousef, W. (1993). A comparison of American and Egyptian cancer patients' attitudes and unmet needs. *Cancer Nurs*, 16(3), 193-203.
- Blank, J. J., Clark, L., Longman, A. J., & Atwood, J. R. (1989). Perceived home care needs of cancer patients and their caregivers. *Cancer Nurs*, 12(2), 78-84.
- Choi, G. S., Park, G. S., & Rhu, E. J. (1999). The needs of patients with cancer and family members in inpatient and outpatient settings. *J Korean Acad Rehabil Nurs*, 2(2), 215-224.
- Choi, J. Y. (2000). *Development of a treatment stage based nursing intervention protocol for adolescents with cancer*.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Seoul.
- Decker, C., Phillips, C. R., Haase, J. E. (2004). Information needs of adolescents with cancer. *J Pediatr Oncol Nurs*, 21(6), 327-334.
- Ferrell, C., Heaven, C., Beaver, K., & Maguire, P. (2005). Identifying the concerns of women undergoing chemotherapy. *Patient Educ Couns*, 56, 72-77.
- Green, B. A., & Logsdon, M. A. (1997). A comparison of the level of hope in patients with newly diagnosed and recurrent cancer. *Oncol Nurs Forum*, 24(5), 899-904.
- Gwon, I. S., & Eun, Y. (1998). Nurse's perception in the home care needs of cancer patient. *J Korean Acad Nurs*, 28(3), 602-615.
- Ham, M. G., Choi, G. S., Eun, Y., Gwon, I. S., & Rhu, E. J. (2001). Demands of illness in cancer patients in outpatient settings. *J Korean Oncol Nurs*, 1(2), 147-156.
- Handerson, S. (2003). Power imbalance between nurses and patients: a potential inhibitor of partnership in care. *J Clin Nurs*, 12, 501-508.
- Hileman, J. W., & Lackey, N. R. (1990). Self-identified needs of patients with cancer at home and their home caregivers: a descriptive study. *Oncol Nurs Forum*, 17(6), 907-913.
- Jeong, J. E. (2003). The comparison of the perceived nursing needs between hospitalized cancer patients, and nurses. *Korean Clin Nurs Res*, 8(2), 91-105.
- Kim, Y. H., Park, K. Y., Kim, M. Y., & Kim, M. O. (2004). The experiences of perioperative patients with cancer. *J Korean Acad Nurs*, 34(6), 945-953.
- Lee, J. G., & Lee, M. S. (2003). Discharge nursing needs of patients having surgery with gastric cancer. *J Korean Adult Acad Nurs*, 15(1), 22-32.
- Lee, M. A. (2004) A study of the nursing service quality and gap perceived by consumers. *J Korean Acad Nurs*, 34(2), 225-234.
- Mordiffi, S. Z., Tan, S. P., Wong, M. K. (2003). Information provided to surgical patients versus information needed. *AORN J*, 77(3), 546-549.

Tang, S. T. (2003). When death is imminent: where terminally ill patients with cancer prefer to die and why. *Cancer Nurs*, 26(3), 245-251.

Uzun, O. (2001). Patient satisfaction with nursing care at a university hospital in Turkey. *J Nurs Care Qual*, 16(1), 24-33.

Yang, Y. H. (1997). The comparison of the perceived needs between patients with cancer, their caregivers, and nurses according to the cancer patient's phases of illness. *J Korean Acad Nurs*, 27(4), 787-795.

Yoo, D. K. (1996). A study on quality perceptions and satisfaction for medical service marketing. *JKANA*, 2(1), 97-114.

A Comparison of Perceived Nursing Needs among Oncology Nurses, Patients with Non-terminal Cancer and Patients with Terminal Cancer

Choi, Ja Yun¹⁾

1) Assistant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Chonnam National University, Chonnam Research Institute of Nursing Science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the perceived importance and the perceived caring of nursing needs among oncology nurses, patients with non-terminal cancer and patients with terminal cancer. **Method:** A total of 83 oncology nurses, 56 patients with non-terminal cancer and 39 patients with terminal cancer served as subjects. Data was collected based on the 4-point Likert scale using a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from Mar. to Sept. 2004. Finally, data was analyzed using mean, SD, paired-test, and ANOVA. **Results:** The score of the perceived importance of nursing needs was higher than that of the perceived performance of nursing needs in all three groups. There was also a difference in the degree of perceived performance of nursing needs among the three groups. In contrast, there was no difference in the total score of the perceived importance of nursing needs among the three groups, unlike the importance of informational and physical needs as a subgroup of perceived importance, where a difference was noted. **Conclusions:** Strategies should be developed to narrow down these gaps between nurses and patients. In particular, informational and educational programs should be designed for patients with terminal cancer.

Key words : Needs, Perception, Nurses, Patients, Cancer

•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Ja Yun Choi

Assistant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Chonnam National University
Chonnam Research Institute of Nursing Science
5 Hakdong Dongku, Gwangju 501-746, Korea
Tel: +82-62-220-4343 Fax: +82-62-225-3307 E-mail: choijy@jnu.ac.kr